# 點吐釋讀口訣 자료에 기입된 口訣字와 대응 口訣點에 대하여*

—『유가사지론』 권5, 8을 대상으로—

장경준**


## 요 약

이 글은 점토석독구결 자료인 『유가사지론』 권5, 8을 대상으로 하여 이 자료에 기입된 구결자를 판독하고 그에 대응되는 구결점의 기능을 검토하였다.

총 65개의 용례에서 'ㅣ, 乙, 丁, 十, ᄀᆞ, ᄭᅮ, ᄒᆞ, 口, 火?, 乃, ㅠ, ᄉᆞᆨ, 卬' 등의 구결자가 판독되었다. 그리고 각각의 용례들을 잠정적으로 해독해 본 결과, 기입된 구결자가 기존의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가지는 기능과 그에 대응되는 구결점이 이 자료에서 가지는 기능이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논의 결과는 이 자료의 구결점이 기존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쓰인 구결자와 서로 대응될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핵심어: 점토석독구결, 자토석독구결, 구결점, 구결자

---

* 이 글은 장경준(2002)의 일부를 대폭 보완한 것이다.

** 연세대 박사과정

## 1. 머리말

각필점토석독구결(角筆點吐釋讀口訣)[1] 자료는 기존의 묵서자토석독구결(墨書字吐釋讀口訣) 자료와 함께 차자표기 및 국어사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 획기적인 자료로 기대되고 있다.[2] 하지만 이 새 자료가 본격적으로 연구에 이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각필구결이면서 점토구결이라는 특성에서 기인하는 두 가지 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문제는 객관적으로 토를 확인할 수 있는 영인본의 보급이 어렵

---

1) 이 글에서는 주요 용어를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口訣" … 기존하는 한문 원문에 토를 닮으로써, 한문을 전면적으로 우리말 문장으로 바꾸거나 혹은 한문에 부분적으로 우리말의 요소를 첨가하는 표기법
■구결의 분류
①우리말의 전면적 표기인가, 부분적 표기인가?
ㄱ."釋讀口訣" … 한문의 구성요소와 토를 모두 이용하여 우리말을 전면적으로 표기한 것
ㄴ."音讀口訣" … 한문의 구성요소는 음독하고 토를 통해 우리말을 부분적으로 표기한 것
②토를 달 때 주로 점과 선을 이용하는가, 문자를 이용하는가?
ㄱ."點吐口訣" … 토의 표기에 점, 선의 형태와 위치 정보를 결합한 "口訣點"을 주로 이용한 것
ㄴ."字吐口訣" … 토의 표기에 기존 한자를 생획한 문자 형태의 "口訣字"를 주로 이용한 것
③시각적으로 토를 분명히 드러낸 것인가, 그러지 않은 것인가?
ㄱ."墨書口訣" … 먹물을 묻힌 붓 등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토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한 것
ㄴ."角筆口訣" … 끝이 뾰족하고 단단한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토가 잘 드러나지 않게 한 것

2) 지금까지 발굴, 조사된 자료로는 『유가사지론』 권3, 5, 8, 『화엄경』 晉本(60권본) 권20, 周本(80권본) 권6, 22, 31, 34, 36, 57, 『法華經』 권1의 11종이 있다. 각 자료의 서지 사항 및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南豊鉉(2000ㄴ), 鄭在永(2001), 小林芳規・西村浩子(2001) 등을 참조할 것.

다는 점이다. 각필구결 자료는 토가 시각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생긴 점이나 흠집 등과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또한 점토구결의 구결점은 점, 선 등의 형태와 더불어 현토되는 위치에 의해 서로 변별되는데 동일한 구결점이라도 그것이 현토되는 한자의 자형에 따라 그 위치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장경준 2002)의 2.3.) 따라서 정밀한 연구를 위해서는 원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영인본의 확보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11종의 자료 가운데 성암고서박물관 소장의 『유가사지론』 권5, 8만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3)]

둘째 문제는 토의 해독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론의 수립과 해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이 자료의 해독을 시도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전제한 것이면서 동시에 밝히고자 했던 것으로 "점토구결의 구결점은 자토구결의 구결자(들)과 서로 대응될 수 있다"는 믿음을 들 수 있는데, 이 자료에서 관찰되는 구결점의 여러 특징을 감안할 때(장경준(2002)의 2.1.) 위의 믿음은 의심의 여지가 많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에서 출발한 논의의 결과는, 구결점의 기본 형태인 단점의 변별 위치는 몇 군데인가와 같은 기초적인 물음에 대해서조차 아직 연구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4)]

따라서 지금은 영인 자료의 보급 추진과 아울러 이용 가능한 최선의 자료인 『유가사지론』 권5, 8의 정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그 동안 발표된 논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나아가 해독의 방법론과 결과에 대해

---

3) 원본을 사진 촬영하여 인화한 사진본, 촬영한 필름을 직접 스캐닝하여 저장한 이미지 파일, 사진본을 편집·스캐닝하여 저장한 이미지 파일의 세 가지 종류의 자료가 공개되어 있다.

4) 『유가사지론』의 점토구결을 대상으로 하여 단점의 추정 점도(현토되는 한자를 사각형으로 가정하고 각각의 구결점이 현토되는 위치와 대응 구결자를 표시한 것)를 발표한 논의에는 南豊鉉(2000ㄴ), 김영욱(2001ㄴ,ㄷ), 李丞宰(2001ㄴ,ㄹ), 尹幸舜(2001), 장경준(2002) 등이 있다.

연구자들의 합의를 도모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유가사지론』 권5, 8을 대상으로 하여 이 자료에 기입된 구결자와 그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이는 구결점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이 자료의 해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 2. 기입된 구결자의 판독

지금까지 알려진 각필점토구결 자료는 『유가사지론』, 『화엄경』, 『법화경』의 세 계통이 있는데, 『유가사지론』은 다른 계통과는 달리 각필로 기입된 구결자들이 많이 있어 주목된다. 구결자들이 기입된 한자에는 대체로 그 구결자와 대응되는 것으로 보이는 구결점이 있어서 해독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5]

현재까지 필자가 『유가사지론』 권5, 8의 영인본을 통하여 확인한 기입된 구결자의 용례는 총 65개인데, 이들을 구결자별로 목록화하면 다음과 같다.

①"ㅣ": 力(권5 01:18), 熱(권5 05:14), 二(권5 06:16), 惱(권5 07:01), 生(권5 07:21), 一(권5 08:21), 用(권5 10:01), 處(권5 10:22), 法(권5 14:10), 法{ㅣㅓ}(권5 15:19), 相(권8 01:14), 行(권8 01:15), 惱(권8 06:15), 樹(권8 07:22), 句(권8 12:09), 句(권8 14:14), 淸{ㅣㅁ}(권8 18:12)

②"ㄱ": 瞋(권8 03:02), 知(권8 04:14), 法(권8 04:23), 行(권8 05:11), 生(권8 05:22), 事(권8 06:02), 生(권8 07:23), 眠(권8 09:02), 法(권8 14:16), 樂(권8 19:07)

---

5) 실제 김영욱(2001ㄴ)에서는 논의된 18개의 단점에 대한 해독 시안 가운데 '기입된 구결자의 존재'가 해독의 논거로 제시된 것이 11개에 이른다.

③"ㄱ": 種(권5 06:04), 人(권5 07:03), 地(권5 11:07), 順(권5 16:08), 所(권5 17:03), 伺(권5 17:21), 是(권8 06:15), 是(권8 06:16), 別(권8 08:02), 句(권8 10:19), 句(권8 11:04), 業(권8 21:12)

④"十": 者(권5 10:14), 法(권5 11:23), 中(권8 08:03), 方(권8 09:09), 事(권8 13:04)

⑤"卬": 夫(권5 05:01), 分(권5 15:14), 斷(권8 06:07), 結(권8 08:03), 縛(권8 08:04), 與(권8 11:16)

⑥"氵": 法{ㅣ氵}(권5 15:19), 險(권5 18:17), 他(권8 17:18)

⑦"灬": 會(권5 06:17), 會(권5 06:18), 緣(권5 08:01)

⑧"火?"[6]: 天(권5 07:07), 來(권8 10:22)

⑨"ㅋ": 者(권5 04:07), 天(권5 06:09), 他(권5 08:02), 惱(권8 05:08)

⑩"乃": 上(권5 07:08)

㉮"口": 淸{ㅣ口}(권8 18:12)

㉯"皿": 攝(권8 06:06)

㉰"ㅅㄱ": 理{ㅅㄱ}(권8 15:21)

㉱"三?"[7]: 苦(권5 03:17)

위의 목록에 제시된 용례들 중에는 기존에 공개된 이승재 교수의 이점본과 차이가 나는 것이 꽤 있다.[8] 이는 토가 시각적으로 잘 드러나

---

6) 李丞宰(2000ㄴ)에서 "爿[져](마지막 획이 없음)"로 보고 南豊鉉(2000ㄴ:18)에서도 "爿[자]"로 추정한 것으로 보이는 구결자인데, 필자는 현재 "火"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이 글의 3.10. 참조)

7) 대응 구결점의 위치와 문맥에서의 통사적 환경으로 보아 구결자가 기입되었다면 "卬"이 쓰였을 자리로 추정되는데, 사진영인본에서는 "三"처럼 보인다.(이 글의 3.14. 참조)

8) 그중 구결자의 판독 결과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만 몇 개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①"者{ㅋ}(권5 04:07)"는 이점본에는 "ㅗ"인 것처럼 되어 있다.

②"者{十}(권5 10:14)"는 이점본에는 "廾"인 것처럼 되어 있다.

③"與{卬}(권8 11:16)"은 이점본에는 "三" 혹은 "氵"인 것처럼 되어 있다.

지 않는 각필구결 자료의 특성에 말미암은 것으로서, 필자의 판독도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논의에 앞서 정확한 판독 여부를 항상 의심해 보아야 함을 일깨워 준다.[9]

판독한 구결자들의 자형상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주목된다. 첫째 기입된 구결자는 한자의 오른쪽 바깥 아래에 위치하면서 왼쪽으로 30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는 점이다. 다만 句(권8 12:09)에는 구결자 "ㅣ"가 한자의 왼쪽 아래에 기입되어 있는데,(이 글 3.1.의 [그림 3]) 이는 오른쪽 아래 부분에 이미 구결점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왼쪽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이해하면[10] 이 원칙에는 예외가 없는 셈이다.

둘째 기입된 구결자는 대체로 획이 날카롭게 각이 져 있으며, 그 크기도 보통의 묵서구결 자료에 현토된 구결자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다. 심지어 구결자의 크기가 원문의 한자보다 더 큰 경우도 있다.(이 글 3.10.의 [그림 12]) 이는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표기한 각필구결 자료의 특성상 붓을 사용한 묵서구결에 비해 획을 부

---

④"理{ㄴㄱ}(권8 15:21)"은 이점본에는 "ㅋ"인 것처럼 되어 있다.

⑤"法{十}(권5 11:23), 知{乙}(권8 04:14), 是{ㄱ}(권8 06:15), 句{ㄱ}(권8 10:19), 業{ㄱ}(권8 21:12)"들은 이점본에는 수평선(혹은 사선)인 것처럼 되어 있다.

9) 李丞宰(2000ㄴ)과 南豊鉉(2000ㄴ:18)에는(후자의 경우 <권3>도 포함) 이 자료에 기입된 구결자 목록이 제시되어 있는데, 구결자별 용례 출처가 밝혀져 있지 않아 검증을 하기가 곤란하다.

또한 김영욱(2001ㄴ:65~68)에서는 (<권3>을 포함하여) "點吐와 釋讀口訣文字가 동시에 새겨진 것이 11종"이라고 하면서 구결자별로 하나의 용례씩만 제시하였는데, 1)제시된 용례가 과연 대응 구결점의 위치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는 점 2)대응 구결점이 존재하는 "卬, 乃, 皿, ㄴㄱ"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이 아쉽다.

10) 이러한 해석은, 나아가 구결자가 기입된 시점이 이미 구결점이 현토된 이후임을 추론할 수 있게 해 준다.

드럽게 하거나 작고 정밀하게 표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11]

## 3. 대응되는 구결점의 기능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자료에서 구결자가 기입된 한자에는 대체로 그 구결자와 대응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구결점이 현토되어 있다. 따라서 기입된 구결자가 자토구결 자료에서 가지는 기능과, 그에 대응되는 구결점이 이 자료에서 가지는 기능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해독 과정에서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기입된 구결자 별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 관련 용례가 속한 부분에 대한 필자의 잠정적인 해독을 논거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직 입증되지 않은 가설 단계이지만, 현재 필자가 추정하고 있는 단점의 점도를 먼저 제시하기로 한다.[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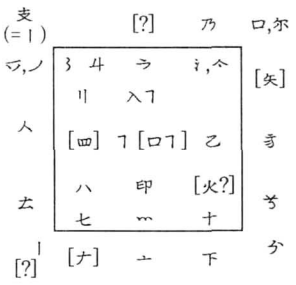
11) 따라서 한 번에 기입된 구결자의 수는 둘을 넘지 못한다. 그리고 이는 이 자료의 토의 표기 방식에서 구결자는 잉여적이거나 이미 현토된 구결점을 분명히 드러내 주는 정도의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는 존재임을 암시한다. 『화엄경』이나 『법화경』 계통의 자료에서는 기입된 구결자가 거의 없다는 점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2) 이 글에서 사용할 구결점의 위치 표시 방안은 李丞宰(2001ㄱ)의 안을 기본으로 하되 이용 선생님의 제안을 수용하여 숫자 표시 방식을 약간 바꾼 것이다.([그림 1]) 따라서 [그림 2]에서 '𞋁', '𞋂', '𞋃'에 대응하는 것으로 표시된 구결점의 위치는 각각 '22', '22-23'(22와 23의 사이를 뜻함), '23'으로 표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림 2]의 점도에서 ","에 의해 나열된 구결자들은 현토된 위치가 같음을 뜻하고, "[ ]" 안에 표시된 구결자 혹은 '?'는 분포 상의 제약으로 인해 아직 논거가 충분치 않음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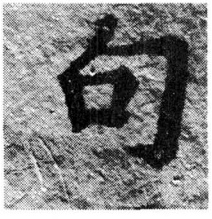
| | | | | |
|---|---|---|---|---|
| 11 | 12 | 13 | 14 | 15 |
| 21 | 22 | 23 | 24 | 25 |
| 31 | 32 | 33 | 34 | 35 |
| 41 | 42 | 43 | 44 | 45 |
| 51 | 52 | 53 | 54 | 55 |

[그림 1] 구결점의 잠정 표시 위치



[그림 2] 단점의 추정 점도
(기준 위치와 대응 구결자)

## 3.1. "ㅣ"에 대응되는 구결점



[그림 3] 句(권8 12:09)

구결자 "ㅣ"는 모두 17번 쓰였는데, 각각의 용례들에서 대응되는 구결점은 대체로 '22-32'의 위치에 있는 단점으로 귀납할 수 있다.[13] 그리고 "ㅣ"에 대응되는 구결점이 가지는 문법적 기능은 주격 조사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14번, 계사 어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2번인 것으로 파악되는데,[14] 두 가지 모두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쓰인 구결자 "ㅣ"의 기능과 같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13) 다만 用(권5 10:01)과 句(권8 14:14)에서는 대응되는 것으로 보이는 구결점의 위치가 '22'에 가깝다. 이와 관련하여 앞선 논의에서는 구결자 "ㅣ"에 대응되는 구결점의 위치를 '22'로 파악하였는데(南豊鉉(2000ㄴ), 尹幸舜(2001), 李丞宰(2001ㄹ) 등), 필자는 '22'의 위치는 기본적으로 구결자 "ㅇ"에 대응되는 자리이며 구결자 "ㅣ"에 대응되는 기준 위치는 그보다 조금 아래인 '22-32'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자세히 논의해 보고자 한다.

14) 계사 어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용례는 句(권8 12:09), 淸(권8 18:12)이고, 그 밖에 用(권5 10:01)의 경우에는 대응 구결점의 문법적 기능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 3.2. "ㄷ"에 대응되는 구결점



[그림 4] 瞋(권8 03:02)

구결자 "ㄷ"은 권8에서만 10번이 쓰였는데, 용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대응되는 구결점을 귀납하면 '34' 위치의 단점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구결점의 문법적 기능은 예외 없이 대격 조사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기입된 구결자 "ㄷ"과 그에 대응하는 구결점의 쓰임은 자토석독구결의 "ㄷ"의 용법과 동일시할 수 있다.

## 3.3. "ㄱ"에 대응되는 구결점



[그림 5] 業(권8 21:12)

구결자 "ㄱ"의 용례는 모두 12번 관찰된다. 대응 구결점은 '33' 위치의 단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용례들에서 구결자 "ㄱ"과 대응 구결점의 문법적 기능은 주제의 보조사로 해석될 수 있어서 자토석독구결의 "ㄱ"과 같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3.4. "+"에 대응되는 구결점



[그림 6] 法(권5 11:23)

구결자 "+"는 모두 5번 관찰되는데, 이 구결자에 대응되는 구결점은 '44' 위치의 단점인 것으로 귀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용례에서 구결자 "+"에 대응되는 구결점들은 모두 처격 조사(의 일부)를 표현하는 데 쓰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자토석독구결의 "+"와 같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3.5. "ᄒᆞ"에 대응되는 구결점



[그림 7] 他(권8 17:18)

구결자 "ᄒᆞ"는 모두 3번 쓰였다. 대응되는 구결점은 단점으로서 일견 '23' 또는 '23-24'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들이 현토된 한자의 자형상의 특징과 해당 구결점이 속한 통사적 환경을 고려하면 이들의 기준 위치는 '24'인 것으로 파악될 가능성이 크다.[15]

"ᄒᆞ"에 대응되는 구결점의 기능은, 法(권5 15:19)에서는 '강세의 보조사'로, 險(권5 18:17)과 他(권8 17:18)에서는 각각 한문 원문에서 '以', '爲'자로 쓰인 동사에 대응하는 우리말 어간 부분을 표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은 기존 자토석독구결 자료인 『유가사지론』 권20에 쓰인 구결자 "ᄒᆞ"의 그것과 일치한다.[16]

### 3.6. "ᄉᆞᆷ"에 대응되는 구결점

구결자 "ᄉᆞᆷ"는 권5에서만 모두 3번 쓰였는데, 대응 구결점은 '43'위치의 단점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會(권5 06:17,06:18)의 두 용례에서는 대응 구결점의 기능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나, 緣(권5 08:01)

15) 장경준(2002)의 2.3.에서 제기한 '한자의 자형에 따라 사각형의 인식이 가변적이었다'고 보는 관점에서 해석한 것으로서, 이 가설에 대한 자세한 논증은 별고를 준비 중이다.

16) 불경 원문에서 동사로 쓰여 '삼다' 또는 '위하다'의 의미로 해석되는 '爲'의 전훈독표기자로 『구역인왕경』, 『금광명경』, 『화엄경』에서는 'ᄒᆞ' 외에 'ᄒᆞᅀᅡ'이 쓰이기도 하였고, 『화엄경소』에서는 'ᄒᆞ' 대신 '三'이 쓰였다는 점에서 문헌 별로 약간의 표기상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15세기 국어의 '-ᅀᅡ'에 비견되는 '강세의 보조사'가 쓰일 자리에서는 모든 자료에서 예외 없이 'ᄒᆞ'로 표기되었다.



[그림 8] 緣(권5 08:01)

의 경우에는 대응 구결점의 문법적 기능이 분명히 조격 조사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자토석독구결에 쓰인 "ㅅ"와 같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3.7. "ㅋ"에 대응되는 구결점



[그림 9] 天(권5 06:09)

구결자 "ㅋ"는 모두 4번 쓰였는데, 대응 구결점은 '23' 위치의 단점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天(권5 06:09)을 제외한 나머지 세 예에서는 대응 구결점의 기능을 모두 속격 조사로 해석할 수 있어서 자토석독구결에 쓰인 "ㅋ"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天(권5 06:09)의 용례는 "ㅋ"에 대응하는 구결점이 그것이 속한 문장을 해독하는 데에 오히려 불필요한 요소로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17]

---

17) 관련 문장을 잠정적으로 해독하여 자토석독구결문으로 대응시킨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점토구결: 謂住鷄羅藍等[33(/)]位[44,33(/)]有情[31]及欲界[42]諸[22-23,51]天[31,23,지시선(/)]

(구결점과 부호를 현토된 한자의 오른쪽 '[]'안에 보이되, 위치 표시에 이어 '()' 안에 형태 표시를 하였다. 단, 단점은 위치 표시만 하였음)

②해독결과: 謂 鷄羅藍 等ㅅㄱ 位ㅓ 住ㅅㄱ 有情ㅅ 及 欲界ㄴ 諸天ㅅ,ㅋ,ㅢ,ㅣ

(단점의 위치에 따른 대응 구결자의 추정은 이 글의 [그림 2]에 의한 것이고, '33(/)'은 'ㅅㄱ'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 글의 3.13. 참조)

위의 해독이 옳다면, "天"에는 차라리 "ㅋ"에 해당하는 구결점이 없는 것이 나은데도 불구하고 구결자 "ㅋ"까지 기입되어 있는 셈이다.

## 3.8. "ㅁ"에 대응되는 구결점



[그림 10] 淸(권8 18:12)

구결자 "ㅁ"는 권8에 유일례가 있는데, 대응 구결점은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 위치의 단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용례가 속한 관련 부분을 잠정적으로 해독하면 다음과 같다.(표시 방식은 각주17)에서와 같이 한다. 이하 같음)

①점토구결: 此[42]中[44]或有[52]淸[22-32,15]而[42]非淨[52(/)]
②해독결과: 此ヒ 中十 或 有ナ? 淸リ,ロ 而灬 非淨ナ冂 亠?

위의 해독에 의하면, 淸(권8 18:12)에 현토된 "ㅁ"에 대응하는 구결점의 문법적 기능은 순접의 연결어미로 해석되고, 따라서 자토석독구결에 쓰인 "ㅁ"의 그것과 같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3.9. "印"에 대응되는 구결점



[그림 11] 與(권8 11:16)

구결자 "印"이 기입된 용례는 6번 관찰되는데, [그림 11]에 예시한 與(권8 11:16)를 제외한 다른 예들에서는 대응하는 단점의 위치가 분명치 않거나 '33'에 가깝게 보인다. 그러나 '33' 위치의 단점은 구결자 'ㄱ'에 대응되는 것이 분명하고, 여기에 쓰인 "印"은 음독구결에서처럼 '인'으로 읽혔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자료에서 구결자 "印"에 대응되는 구결점의 기준 위치는 '33-43'일 가능성이 크다.(후술 참조)

구결자 "印"과 관련하여 기존의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는 다음의 유일례가 관찰된다.

(예1) 彼ㄱ 亦ㅅㄱ 其 差別法ㄴ 如印 世ㄷ 宜ㄱ 所ㄴ 隨ㄱ 而ㅁ 化度ㅅㄴㄱ <화엄 18:09>

위 (예1)에서는 대격 명사구를 논항으로 취하는 동사로 쓰인 "如"자의 좌측토로 쓰였기 때문에, 같은 환경에서 현토된 "ᄒᆞᆫ"과 같이, 동사 어간 "*ᄀᆞᆮ-"의 全訓讀表記字였을 것으로 추정될 뿐 더 자세히는 알기 어려운 구결자이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印"은 석독구결에 쓰인 "印"과 자형은 같으나 그것이 쓰인 통사적 환경이 동사 "如-"와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서로 관련짓기가 곤란하다.

한편 구결자 "印"은 음독구결 자료에서는 音假字로 쓰여 "인"으로 읽혔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이 구결자가 쓰인 용례들에서 대응되는 구결점과 '33-43' 위치의 단점들은 "인"으로 읽을 경우, 즉 석독구결의 "ㅣㄱ"에 대응시킬 경우 자연스럽게 해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18] 따라서 이 자료의 구결자 "印"은 석독구결에 쓰인 "印"과는 관련이 없고 음독구결에 쓰인 "印"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 3.10. "火?"에 대응되는 구결점

[그림 12], [그림 13]에서 보듯 天(권5 07:07), 來(권8 10:22)에는 기존의 구결 자료에서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 자형의 구결자가 기입되어

18) 필자는 이 자료의 단점의 점도에서 한가운데('33' 위치)의 'ㄱ'을 중심으로 위쪽('23-33' 위치)에는 'ㅅㄱ', 오른쪽('33-34' 위치)에는 'ㅁㄱ', 아래쪽('33-43' 위치)에는 'ㅣㄱ(=印)'에 각각 대응하는 단점의 위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그림 2] 참조) 이에 대해서는 다른 자리에서 자세히 논의해 보고자 한다.



[그림 12] 天(권5 07:07)



[그림 13] 來(권8 10:22)

있다. 일단 형태상으로는 기존 구결자 가운데 "火"자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두 용례에서 공통적으로 대응되는 구결점은, '天'과 '來'의 자형상 기준 위치를 정하기가 쉽지 않으나, '乙'에 대응하는 '34'와 '十'에 대응하는 '44'의 가운데인 '34-44' 위치의 단점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들 용례가 속한 관련 부분을 잠정적으로 해독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점토구결: 唯[32-42]除樂化天[31]及他化自在天[21-31,34-44,51(·.)]
②해독결과: 唯ハ 樂化天人 及 他化自在天人,火? 除ノチ丨?

①점토구결: 謂乃至[22-32]未遠離[미상(/)]來[34-44]名[54]
②해독결과: 謂 乃至リ 未遠離(?)來火? 名下

기존 자토석독구결 자료의 현토 경향과 문법 지식으로 볼 때, 天(권5 07:07)과 來(권8 10:22) 모두 대격 조사가 쓰일 만한 자리에 해당 구결점이 현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래 (예2)에서처럼 자토석독구결에서 대격 조사가 쓰일 자리에 보조사 "火"이 쓰일 수 있었으므로, 이 구결점의 기능은 자토석독구결에서 구결자 "火"이 가졌던 기능과 같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예2)ㄱ. 是リ 三昧神通ヒ 相し火 如ンフ 一切 天人リ 能矣 測ミ仝 莫ヒナ丨 <화엄 17:19>

ㄴ. 二者 福德火七 具尸 未ㅅㄴㄱㅣㅓㄱ 得ㄱ尒 安樂 不冬ㄴㄱ
<금광 03:13>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들 구결점에 대응되는 구결자는 "火"인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점도에 이를 표시할 때에는 자형상의 차이를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그림 2]에서처럼 "火?"로 표기하기로 한다.

## 3.11. "ㄱ"에 대응되는 구결점



[그림 14] 上(권5 07:08)

구결자 "ㄱ"는 上(권5 07:08)에 유일례가 있다. 대응되는 구결점은, '上'자의 자형을 고려했을 때, '14' 위치의 단점으로 파악할 수 있다(각주15) 참조).

이 용례가 속한 관련 부분의 잠정적인 해독은 다음과 같다.

①점토구결: 四大王衆[33]天[지시선(/)]於父母肩上[44,14]或於懷中[44,14]
②해독결과: 四大王衆天ㄱ [於]父母肩上ㅓ,ㄱ 或 [於]懷中ㅓ,ㄱ

위의 해독에 의하면, 구결자 "ㄱ"에 대응하는 구결점은 선택의 의미를 갖는 연결어미의 문법적 기능을 표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아래 (예3)에서와 같은 자토석독구결의 "ㄱ"와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3) 又 彼ㄱ [於]晝夜ㄱㅓ 若 行ㄴㄱ 若 住ㄴㄱ 衣服ㅓ 飮食ㅓ 命緣ㅓ ㄴ尸ㄴ 習近ㄴㄱㅅㄴ 如ㅅ 習近ㄴㄱㅅㄴ 由ㅋㄱㅅㅁ 故ㄴ <유가 27:21-22>

## 3.12. "㠯"에 대응되는 구결점



[그림 15] 攝(권8 06:06)

구결자 "㠯"의 경우도 攝(권8 06:06)에 유일례가 있다. [그림 15]에 보이는 바와 같이 "㠯"에 대응되는 구결점은 그 위치가 "亻"에 대응되는 구결점의 위치와 같은 '31'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재방변(扌)을 가진 '攝'자의 자형을 고려해 볼 때 이 구결점의 기준 위치가 '32'일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각주15) 참조).

이 용례가 속한 관련 부분의 잠정적인 해독은 다음과 같다.

①점토구결: 謂[33]此自性[22-32]上品[43]所攝[33(丶),31]甫初奚對治道[43]之所斷[15-25(-),33-43 ]故[43,51]

②해독결과: 謂ㄱ 此 自性ㄐ 上品ㅛ 攝ノㄱ 所㠯 甫初奚對治道ㅛ [之]斷尸 所ㄐㄱ故ㅛ,ㅣ

이러한 해독이 옳다면, "㠯"에 대응되는 구결점의 문법적 기능은 '이유, 원인'의 의미를 갖는 연결어미의 그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예4)에서와 같이 자토석독구결에서 구결자 "㠯"가 표상하는 기능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예4) 六 多分 憂愁ンヨホ 難養難滿ノチ㠯 喜足し 知尸 不ハノ仝七 過失ㄐ分 <유가 13:16-17>

## 3.13. "ノㄱ"에 대응되는 구결점

구결자 "ノㄱ"이 기입된 理(권8 15:21)의 경우에는 대응되는 구결점이 단점이 아니고 선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매우 크다.([그림 16])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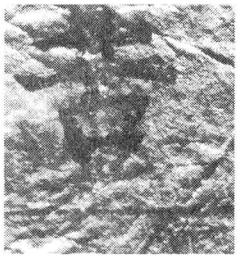

[그림 16] 理(권8 15:21)

위치의 사선이 "ㅅㄱ"에 대응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알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관련 부분을 잠정적으로 해독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점토구결: 不中理[33(/)]因[43]而[43]宣說[43(|)]故[21]名[54]
②해독결과: 不中理ㅅㄱ 因ᄆᆞ 而ᄆᆞ 宣說ㅅㄱᄆᆞ? 故ㅣ 名ㅏ

실제 이 위치('33')의 사선을 "ㅅㄱ"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면 거의 모든 용례가 자연스럽게 해독된다.

## 3.14. "三?"에 대응되는 구결점


[그림 17] 苦(권5 03:17)

마지막으로 苦(권5 03:17)의 용례는, 그것이 대응되는 점의 위치와 그 점이 속한 문맥의 통사적 환경을 고려해 볼 때, "卬"을 기입한 것이 획의 일부가 희미해지거나 지워진 것일 가능성이 크다.

관련 부분을 잠정적으로 해독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점토구결: 愁歎憂苦[33-43]種種熱惱[23]所依處[33-43]故[43,55]
②해독결과: 愁歎憂苦ㅐㄱ 種種熱惱ㅋ 所依處ㅐㄱ 故ᄆᆞ,ᄉᆞ

해당 문맥에서 '愁歎憂苦'와 '種種熱惱'는 동격 성분으로 쓰였다. 따라서 '苦'자에 현토된 구결점은 'ㅐㄱ'에 대응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여기에 기입된 구결자는 비록 '三'자 비슷하게 보이

지만 주변의 훼손 정도가 심한 것으로 미루어 애초에 '卬'을 적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것이다.(이 글의 3.9. 참조)

## 4. 맺음말

지금까지 각필점토석독구결 자료인 『유가사지론』 권5, 8에 기입된 구결자를 판독하고, 해당 용례에서 기입된 구결자에 대응하는 구결점의 기능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판독된 구결자 중 '丨, 乙, 丁, 十, 亻, 冖, 冫, 口, 火?, 乃, 丌' 등은 대응 구결점이 단점으로서, 그것이 표상하는 문법적 기능이 해당 구결자가 기존의 자토석독구결에서 가졌던 것과 같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ㅅㄱ'은 대응 구결점이 사선으로서 또한 자토석독구결의 'ㅅㄱ'에 대응되는 것으로 해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卬'의 경우에는 자토석독구결에 쓰인 '卬'과는 관련짓기 어려운 반면 음독구결에 쓰인 '卬'과 같이 '인'으로 읽었을 것으로 추정되었고, '三?'은 애초에 '卬'을 기입한 것이 훼손되어 '三'처럼 보이게 된 것으로 의심하게 되었다.

기입된 구결자에 대응하는 구결점이 대부분 기존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쓰인 구결자와 같은 기능을 갖는 것으로 파악된 이러한 결과는, 이 자료가 점토구결 자료로서 표기 방식만 다를 뿐 기존의 자토구결 자료와 동일하게 당시의 언어를 전면적으로 표기한 석독구결 자료임을 보여주는 적극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이 자료의 구결점을 해독하는 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기입된 구결자의 존재가 대응 구결점의 해독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특히 특정한 구결점이 같은 형태를 갖는 다른 구결점들과 서로 변별되는 자신의 고유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는, 구결자가 기입된 용례가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기입된 구결자가 '이미 현토된 구결점의 위치가 분명치 않거나 잘못되었을 경우 그것을 분명히 하거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쓰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결점의 완전한 해독을 위해서는 구결자의 존재 여부를 떠나 의심되는 위치에서 형태를 공유하는 구결점들의 모든 용례가 다양한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김영욱(2001ㄱ), 「初雕大藏經 瑜伽師地論 卷三의 口訣에 대하여」, 『제24회 구결학회 공동연구회 발표논문집』, 口訣學會. pp.137~143.

_____(2001ㄴ), 「瑜伽師地論 점토의 해독 방법 연구」, 『口訣硏究』 7, 口訣學會. pp.57~77.

金永旭(2001ㄷ), 「瑜伽師地論 雙點吐의 解讀 方法 硏究」, 『제2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口訣學會. pp.215~229.

南豊鉉(2000ㄱ), 「高麗時代의 點吐口訣에 대하여」, 『제27회 국어학회 공동연구회 발표논문집』, 국어학회. pp.41~44.

_____(2000ㄴ), 「高麗時代의 點吐口訣에 대하여」, 『書誌學報』 24, 韓國書誌學會. pp.5~45.

_____(2001ㄱ), 「口訣의 種類와 그 發達」, 일본 북해도대학 워크샵 발표논문집. pp.11~20.

_____(2001ㄴ), 「高麗時代 點吐釋讀口訣の種類とその讀法について」, 朝鮮學會(일본 천리대학) 공개강연 원고

_____·李丞宰·尹幸舜(2001), 「韓國의 點吐口訣에 대하여」, 『訓點語と訓點資料』 107, 東京: 訓點學會. pp.69~102.

백두현(1997), 「高麗 時代 口訣의 文字體系와 通時的 變遷」 『아시아 諸民族의 文字』, 태학사. pp.287~384

서민욱(2001), 「'者'字의 부호구결에 대하여」, 『口訣硏究』 7, 口訣學會. pp.16

7~197.

尹幸舜(2001), 「한국의 부호구결과 일본의 오코토점에 대하여」, 일본 북해도 대학 워크샵 발표논문집. pp.91~106.

李丞宰(2000ㄱ), 「初雕本 瑜伽師地論의 角筆 符號口訣에 대하여」, 『제23회 구결학회 공동연구회 발표논문집』, 口訣學會. pp.59~69.

_____(2000ㄴ), 「새로 발견된 각필 부호구결과 그 의의」, 『새국어생활』 10-3, 국립국어연구원. pp.135~152.

_____(2001ㄱ), 「周本 華嚴經 卷第22의 角筆 符號口訣에 대하여」, 『口訣硏究』 7, 口訣學會. pp.1~32.

_____(2001ㄴ), 「瑜伽師地論 角筆 符號口訣의 解讀을 위하여」, 『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李珖鎬先生 回甲紀念論叢).

_____(2001ㄷ), 「符號의 字形과 制作 原理」, 『高永根先生 停年紀念論叢』, 태학사.

_____(2001ㄹ), 「符號字의 文字論的 意義」, 『國語學』 38, 국어학회. pp.89~116.

장경준(2002), 「『瑜伽師地論』 角筆口訣에 대한 管見」, 2002년 2월 구결학회 월례강독회 발표 원고.

鄭在永(2001), 「誠庵古書博物館 所藏 晉本 華嚴經 卷二十에 대하여」, 『口訣硏究』 7, 口訣學會. pp.33~56.

小林芳規・西村浩子(2001), 「韓國遺存の 角筆文獻 調査報告」, 『訓點語と訓點資料』 107, 東京: 訓點學會. pp.36~68.

# 点吐釈読口訣資料に記入された口訣字とそれに対応する口訣点について

—『瑜伽師之論』巻5と8を対象として—

張景俊

本稿は、点吐釈読口訣資料である『瑜伽師之論』巻5と8を対象として、当資料に記入された口訣字を判読し、それに対応する口訣点の機能を検討した。

合計65の用例で'ㅣ, ㄴ, ㄱ, 十, ㅣ, ㅡ, ㄹ, ㅁ, 火?, ㄲ, ㅠ, ㅅㄱ, ㅂ'などの口訣字が判読された。また、各々の用例を暫定的に解読してみた結果、記入された口訣字が既存の字吐釈読口訣資料で有する機能と、それに対応する口訣点がこの資料で有する機能とが、ほぼ一致し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この結果は、当資料の口訣点が、既存の字吐釈読口訣資料に用いられた口訣字と互いに対応できるもので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ところから重要な意味をもつ。

*キーワード: 点吐釈読口訣、字吐釈読口訣、口訣点、口訣字